

백신휴가 양극화... 대기업 '적극도입' vs 중소기업 '눈치'

업무 공백 피하기 위해 금요일 접종 권장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선 백신휴가 '글썸'

전문가 "장기적 관점 고려해 휴가 주어져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휴가 사용 여부가 직종·기업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선 유급 휴가인 백신휴가 도입이 수월한 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그렇지 못해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중대본 지침을 보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자는 직장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백신휴가는 예방 접종 후 발열과 통

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나온 조치로서, 유급 휴가나 병가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모두가 백신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백신휴가가 힘든 직종·작업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선 백신휴가를 사용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대전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27)씨는 오는 6월부터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사전예약을 했다. 그런데 편한 일자에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어린이집 차원에서 교사들은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도록 장려했다고 한다.

이씨는 "금요일 오후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반응이 나타나도 평일에 백신휴가를 쓰는 대신 주말에 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고 학부모 눈치를 봐야 하는 어린이집이 교사를 쉬게 하면서까지 백신휴가를 쓰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국민(18~64세)을 상대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백신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휴가를 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선 접종이 꺼려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요식업을 하는 김모(30)씨는 "내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부작용이 크다고 하더라"며 "자영업자들은 필수로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백신을 꼭 맞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중소 IT 기업을 2년째 다니고 있는 박모(26)씨는 "재택근무

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백신휴가까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백신휴가 제 재정 지원 제도와 방점에 대해 "소규모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백신휴가 부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반면 대체로 대기업에선 백신 휴가를 도입했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LG그룹, SK하이닉스 등도 백신을 맞는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SK그룹 등도 백신휴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백신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등도 백신 접종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정부 부처, 정치인들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백신휴가를 보장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종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을 미루다 직장 내 클러스터

(집단감염)가 생기면 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게 되는 데 이런 피해는 하루 이틀 휴가를 주는 것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백신 휴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백신에 대한 저항감, 걱정 등을 해소할 수 있어 접종 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사용자 측도 이해를 해야 한다"며 "휴가를 주는 것이 단순히 손해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유출업소 집합금지 명령 해제하라’

한국유출업소 중앙회 경기지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광양 금속자재 업체서 40대 기계에 끼여 숨져

20일 오전 8시20분께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모 건축 금속 자재 업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설비에 끼인 것을 업체 관계자가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콘베이어 벨트와 절단기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 코로나19 백신접종 어르신 일가족 확진에도 감염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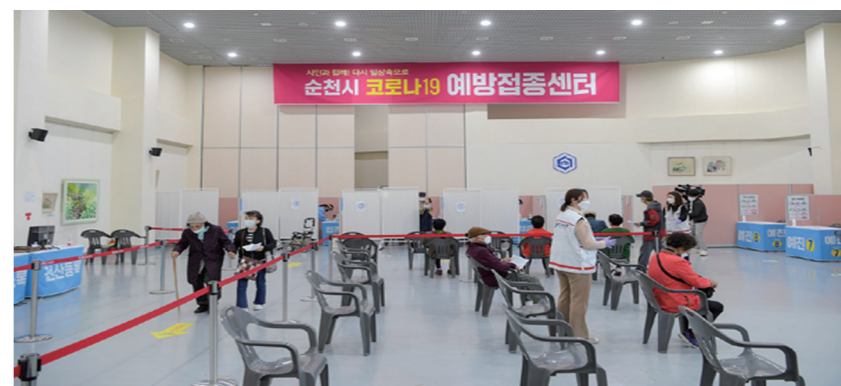
3대가 함께 생활하는 일가족 6명 감염에도 백신접종자만 미감염

순천에서 최근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족 중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만 감염이 되지 않아 백신접종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다.

지난 10일 순천시 매곡동에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7명 중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족 중 유일하게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 이 어르신은 75세 이상으로 순천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중 절반정도만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11명이 감염되었고, 지난 4월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23명 중 22명이 감염되고 백신을 맞은 1명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효과가 단순 숫자가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조속히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5월 현재 26,125명을 접종하여 전체 시민 대비 9.2%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 만선중증후 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6월 19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접종대

상자는 지정된 일자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맞아 주시길 바란다."며, "순천시는 안전한 접종을 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은 ▲온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콜센터 '1339', '061-749-668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순천=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